

“국가 공모사업 능동 대응해야”

전북연구원, 정책공유 플랫폼 구축 제안 관광분야 선정을 제고 위해 전략 마련 강조

정부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공모사업이 단일 사업 위주의 정부 주도형태에서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능동적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구축해 전라북도의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공모형 지역관광사업의 전라북도 대응방향’ 주제의 이슈브리핑 발간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생태계 조성을 국가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분별 공모사업에 능동적인 대응 태도와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개발과 진흥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추세는 중복 및 유사 또는 획일적 아이디어 제시로 인하여 향후 지역관광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관광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별 맞춤형 매력적 관광지를 육성하여 관광객의 지방 분산화, 국토 및 지역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슈브리핑(210호)에서는 국정운영의 핵심요소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광분야의 중앙 주도형 지원 사업이 시도자 우선사업 성격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으나, 대규모 공모사업은 여전히 정부가 직접 운용함에 따라 국가 공모사업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공모사업 대응의 능동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2020년에는 정부는 서울과 제주 외 외래관광객이 집중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관광거점도시 관련 공모사업에 유류 관광자원의 재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자체와 협력을 요구하는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를 예정하고 있다.

이슈브리핑은 전라북도가 국가 공모사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타깃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 ‘지역관광거점도시’ 및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집중 공략할 필

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역관광거점도시(한옥마을), 익산(백제역사유적지구), 군산(근대역사문화지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핵심, 전략 및 연계사업의 실천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며, 전라북도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 지역관광발전의 마스터플랜과 같은 계획을 시군별로 우선 마련하여 향후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포스트세가 필요하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전국 대비 높은 선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내년 시군간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선정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형오 박사(연구책임)는 “전북도는 2018년 지역방문 관광객이 약 38,003천명으로 양적 성장의 도약을 이룬 반면,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관광지와 유류 관광자원의 재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자체와 협력을 요구하는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의 시·군간 능동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복·획일적 사업에서 탈피하는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의 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총리가 23일 오전 게이오대학 동관 8층에서 법학부 3·4학년 19명과 감담회를 가졌다.

“한일, 대화로 문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해야”

이낙연 총리, 일본 게이오대 학생 20여명과 간담회 가져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문제를 키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먼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토양을 물려주는 게 지금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미나토(港)구에 위치한 게이오대학 동관 8층에서 법학부 3·4학년 학생 19명과 함께 한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여러 조약과 협정 위에 있다. 일본처럼 한국도 1965년 체결된 모든 협정을 존중하며 지켜왔다. 앞으로도 한국은 1965년 협정과 조약을 존중하고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협정의 일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1965년 당초부터 있어 왔고, 그런 부분적인 견해 차이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한일 양국은 대

화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다. 양국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던 문제고 따라서 과거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가 더 촉진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양국 청년들에게 크나큰 기대를 갖고 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세계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한일관계를 보고, 미래의 양국관계를 크게 보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탄원서 미팅 형식의 행사

를 통해 학생들과 자유토론도 나눴다. 학생들은 일본 불매운동 현상과 한일관계에 대한 이 총리의 생각, 특파원 시절 도요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총리는 일본 여행 감소 추세와 관련해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여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런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양국 국민이 갖고 있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없애드리도록 정치가 좀 더 지혜를 짜내고 분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 지금 한일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가장 아픈게 생각하는 건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어른들이 청년들의 시간과 마음을 뺏고 있다”며 “그래서 청년들의 교류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게 정부가 프로그램 더 보강한다든가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1스

전북도,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전북도가 도내 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도정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도는 23일 저녁, 국회 앞 한 식당에서 도내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30명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오는 31일에 열리는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될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병기 정무부지사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GM군산공장 중심으로 한 전북형 일자리, 현안법 제·개정안 통과 등 정치권과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산심사가 본격 돌입함에 따라 도에서는 금주부터 국회상추반을 운영하여 주요사업 삭감방지 및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심

사동향을 살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보좌관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병기 정무부지사와 이강오 대외협력국장 등 도정 간부진과 도내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 등 30명이 참석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가 3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자리로 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과 사전 안건 협의의 등 실무차원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분석능력평가 ‘우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한 2019년도 약취,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아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립 연구기관, 환경 관련 측정분석기관 등을 대상으로 분석능력 향상과 분석결과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다.

평가항목은 약취분야 복합약취 등 6개 항목과 실내공기질분야 벤젠 등

7개 항목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으로 환경 측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내 최고 분석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치매관리워크숍 성료...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 방향 모색

전북도는 23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2019 전라북도 치매관리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외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및 치매안심센터, 도민 등 약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내용으로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부 치매노인의 인권과 보호를 이야기하다. ▲2부 치

매친화적 환경은 잘 조성되어 가는가를 내용으로 다루었다.

1부는 ‘치매공공후견제도와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김기정 변호사(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가 발표하였고, 2부에는 ‘치매안심마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주제로 조은미 센터장(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과,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대학)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 패널토의에서는 한명일 센터장(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을 좌장으로, 군산시 치매안심마을 담당자 김수아와 장봉석 회장(치매케어협회)이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대해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열린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가와 전북도가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해 기울인 다양한 노력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살펴보고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